2026년 4월 21일 | Global Asset Research

DIN (Doo It Now)

6천피 생존 전략: ①재평가의 서막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채널전략팀 RA 김민근 minkeunkim@ 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결론적으로) 이란 전쟁 이후 **재평가의 축을 잡는 것**이 투자 전략의 핵심이다. 주목할 포트폴리오는 3개다. **첫째, 안보와 동맹 재편의 수혜**를 받는 방산·조선·전력기기, **둘째,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의 수혜를 받는** 원전·LNG·대체에너지, 그리고 **셋째, 비용 압력을 생산성으로 돌파할 AI 인프라·반도체·자동화**다. 이번 중동사태는 단기 충격에 그치지 않는다. 전쟁 이후의 시장은 '누가 더 안전한가'보다 '누가 더 빨리 **만들고, 보내고, 복구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제조업의 시대고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란發 중동 사태 관련해서 주말 사이 또 다시 이슈들이 불거졌다. 시장은 이제 "회담이 열리느냐"보다 **"에너지 동맥이 안정적으로 다시 작동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은 모두 "진전은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음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핵심 쟁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고농축우라늄 처리, 농축 중단 기간, 제재 해제의 순서, 그리고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질서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최근 가격 반응도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란이 일시적으로 상업 선박 통행을 허용하자 브렌트유는 하루 9% 급락해 배럴당 90.38달러, WTI는 11.45% 하락한 83.85달러로 밀렸지만, 통제 강화와 재봉쇄 우려가 다시 부각되자 유가는 재차 흔들렸다. 전쟁 전 하루 130척이 넘던 호르무즈 통항은 여전히 정상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고, 전쟁위험 보험료는 일부 구간에서 10배 이상 급등했다. 결국 헤드라인이 아니라 **통항 지속성, 보험 정상화, 물동량 회복**이 진짜 변수다.

미국과 이란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듯 하지만, 파국보다는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조율 중이고, 시장의 시선은 이제 다음 변수로 옮겨가고 있다(4/13, 협상은 흔들려도, 시장은 실적을 본다). 따라서 이란 전쟁 그 이후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시기이다. 이란 전쟁은 다양한 부문들의 재평가를 불러올 전망이다. 첫째, **동맹의 재평가**다. 이번 전쟁은 과거처럼 이념, 조약, 주둔군 숫자만으로 안보를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호르무즈는 2025년 기준 하루 약 20mb/d의 석유와 글로벌 LNG 교역의 약 19~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대체 파이프라인 여력은 3.5~5.5mb/d 수준에 그친다. 이런 환경에서는 누가 더 빨리 **만들고, 보내고, 고치고, 복구할 수 있는가**가 동맹의 실질 가치가 된다.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GDP의 27%, 일본은 21%, 독일은 18%이다. 공급·정비·복구 능력이 외교의 부속물이 아니라 전략 그 자체가 되는 국면이다.

둘째, **중동의 재평가**다. 중동은 더 이상 "무한한 에너지 공급 창고"로만 보기 어렵다. 이번

충돌은 원유 자체보다도 운송, 보험, 항만, 전력, 담수화, 정유·석화 설비가 함께 가격표를 갖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아시아는 이미 중동산 LPG 차질을 메우기 위해 미국·노르웨이·캐나다 물량으로 조달선을 넓히고 있고, 중국은 전쟁 와중에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에너지 시스템과 원전 확대를 더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중동은 공급지이면서 동시에 상시적 안보 비용을 청구하는 지역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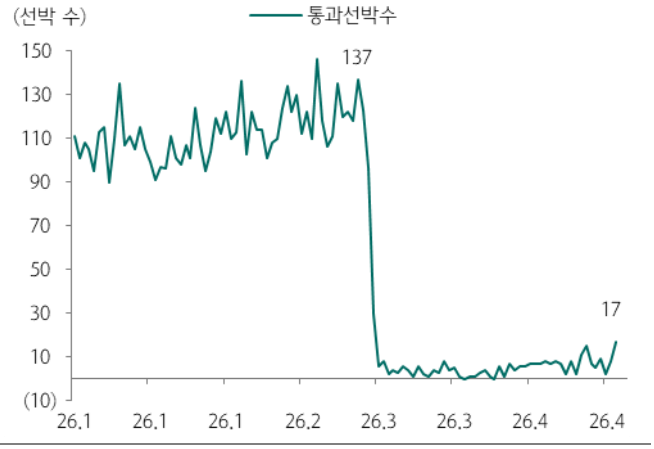
셋째, **인플레이션의 재구성**이다. 3월 미국 CPI는 전년동월대비 3.3%로 다시 뛰었고, 에너지는 12.5%, 휘발유는 18.9% 상승했다.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와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도 이번 전쟁이 이미 물가 압력을 높이고 있으며 금리 경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시장은 1970년대식 공급충격의 기억을 다시 소환한다. 다만 이번 국면을 1970년대의 단순 복제판으로 보기도 어렵다. 미국의 생산성 추세는 여전히 견조하고, 노동생산성은 2025년 2.1% 증가했으며 기업들의 AI 도입이 추가적인 생산성 개선 요인으로 거론된다. 즉,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공급충격의 상방 압력**과 **AI 생산성의 하방 압력**이 맞서는 구도다.

넷째, **재건의 재평가**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가 이미 하나의 장기 투자 주제가 됐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향후 10년 재건·회복 수요를 거의 5,880억달러로 추정한다. 동시에 중동도 재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중동 에너지 인프라 복구 비용은 최대 580억달러까지 커질 수 있고, 이란의 손상이 가장 크다. 이란은 정유·유통 설비를 1~2개월 안에 70~80%까지 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석유화학 수출은 이미 중단됐고 경제 전반의 타격도 깊다. 중요한 점은 이란이 전형적 단순 산유국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란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GDP의 20.6%였고, 수입 구조에서도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이 크다. 그래서 전후 이란은 단순한 "원유 회복"이 아니라 **정유·석화·전력망·항만·산업설비 전체의 복구 수요**로 읽는 편이 맞다.

다섯째, **달러 패권의 재평가**다. 역사적 출발점은 1945년 USS *Quincy* 에서의 루스벨트-압둘아지즈 회동이다. 다만 이번 전쟁이 곧바로 달러 패권의 종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달러가 여전히 세계 최상위 준비통화 지위를 잃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변화는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9.5조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관리하는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지정학은 가장 큰 리스크로 부상했고, 응답 기관의 거의 70%가 이를 최우선 위험으로 꼽았다. 금 보유 확대 의향도 높아졌다. 달러는 여전히 중심이지만, 그 주변부에서 금과 일부 원자재 통화, 그리고 비달러 결제·준비자산 다변화가 더 자주 논의되는 구도다. 다시 말해 질문은 "달러가 무너지느냐"가 아니라, "**달러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점점 더 비싸지는가**"에 가깝다.

따라서 이란 전쟁 이후의 투자전략은 단순한 유가 베팅이 아니라 **재평가의 축을 잡는 문제**다. 포트폴리오를 세 갈래로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방산·조선·전력기기·전선·원전·엔지니어링처럼 "만들고 보내고 복구하는" 제조·인프라 축이다. 둘째는 LNG, 가스 인프라, 대체 에너지, 저장·운송처럼 에너지 안보 재편의 수혜 축이다. 셋째는 AI 인프라와 생산성 개선 수혜주다. 이번 전쟁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보다, **더 비싼 안보와 더 높은 복구 수요, 그리고 더 전략적인 제조업**의 시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도표 1. 이란 전쟁은 에너지 동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 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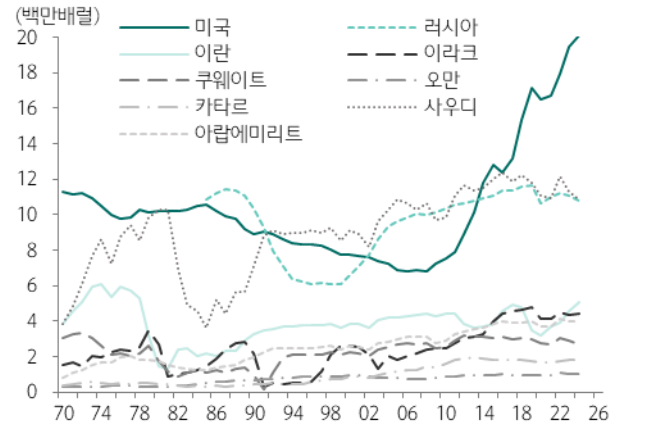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동맹의 기준은 더 빨리 만들고, 보내고, 복구할 수 있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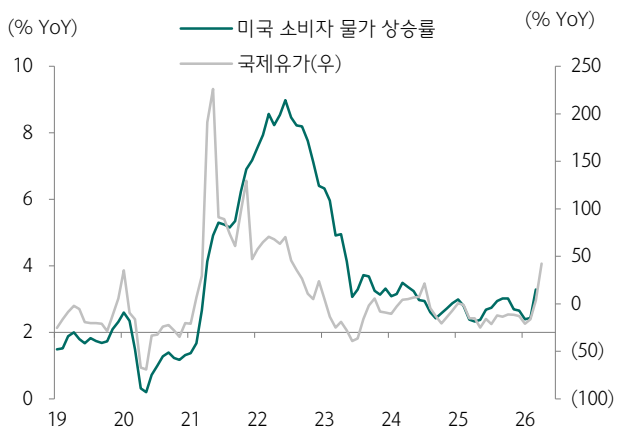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3. 에너지 공급망 재편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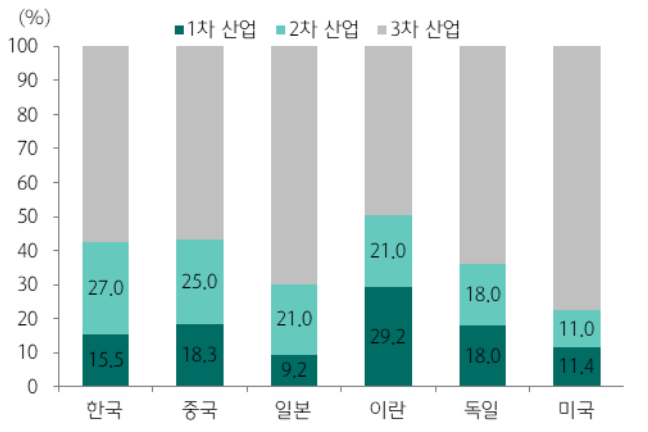
자료: EI, 하나증권

도표 4. 전쟁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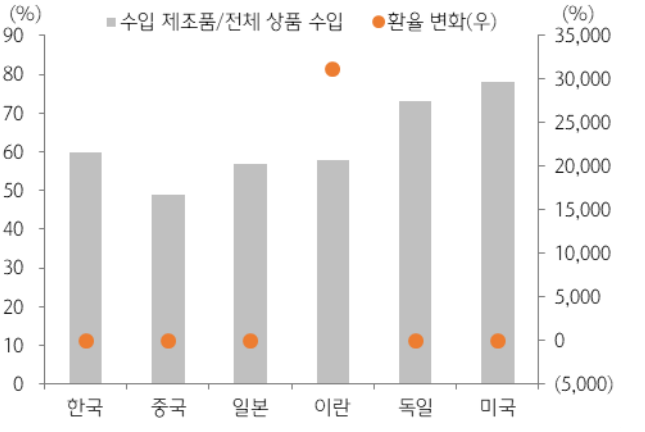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5. 중동 재건은 제조업 중심인 이란의 복구에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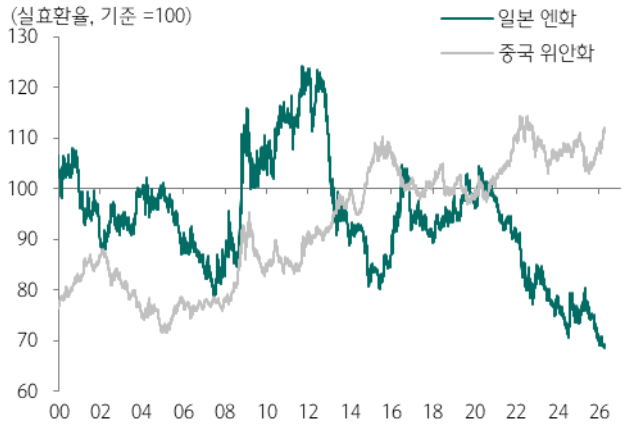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하나증권

도표 6. 전쟁 이후, 이란 리알화 가치 폭락, 제조 경쟁력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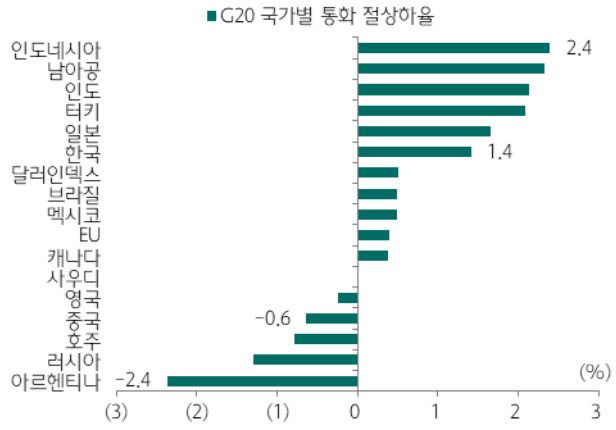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하나증권

도표 7.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차이는 점점 뚜렷해져



자료: Refinitiv, 하나증권

도표 8. 이란 전쟁 이후, G20 국가들 중에서 위안화 강세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주: 달러-통화 기준, +인 경우 절하, -인 경우 절상

도표 9. 이란발 중동 사태 3단계(전선의 다층화)에서 4단계(출구의 단계) 진입

Stage 1: 이란 신정 체제 타격,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붕괴	
2/28	**미국·이스라엘, 이란에 예방적 미사일 공격 단행으로 전쟁 발발**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가 통보
	이란 테헤란 내 서로 다른 13곳, 이란 전역 12개 도시 공습 발생
3/1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망 발표**
3/2	**호르무즈 해협서 민간 선박 3척 피격**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
	이란, 아람코 라스타누라 정유시설 드론으로 공격
3/3	**트럼프 대통령, 걸프 유조선에 대한 미 해군 호위 및 보험 약속**
	이스라엘,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 공습
	이스라엘, 이란 지하 핵시설 '민자데헤' 타격
3/4	**이란 분쟁 종식 위한 물밑 협상 요청 보도됐으나 이란은 부인**
	트럼프 대통령·쿠르드족 지도자간 통화 사실 발표
	쿠르드족, 이란 내 지상 공격작전 개시 보도
3/6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이라 발언**
3/7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걸프 국가에 사과 및 공격 중단 선언**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사과 후 바레인·UAE 추가 공습
	트럼프 대통령, 쿠르드족이 개입하는 것 원치 않는다 발언
3/8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선출**
	국제유가 WTI 배럴당 100달러 돌파. 2022년 7월 이후 처음
	이스라엘, 이란 샤흐런 석유저장소 등 연료저장시설 집중 타격
3/9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전쟁 곧 끝날 수 있다 발언**
	G7 국제유가 대응책으로 전략비축유 공동 방출 논의
3/10	**이란 혁명수비대,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이란)라 맞대응**
	국제에너지기구(IEA) 비축유 방출 관련 긴급회의 소집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 시 전례없는 군사적 결과 직면할 것이라 경고
3/11	**국제에너지기구(IEA), 4억 배럴 비축유 방출 결정**
	미국, 이란 기뢰 부설 함정 16척 타격 발표
	이란, 종전안으로 미국 배상금 지급 및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등 제시
Stage 2: 모즈타바 하메네이 집권과 항전의 시작	
3/12	**모즈타바 하메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계속할 것**
	미국 국방부, 전쟁 첫 10일 간 113억 달러 지출 상회
3/13	**미국 국방부, 중동 지역에 상륙강습함과 해병대 병력 파견 요청 승인**
	트럼프 대통령, 다음주 이란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 발언
	이란, 위안화로 거래되는 석유 화물 실은 유조선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허용 방안 논의
	미군,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압박 위해 이란의 경제적 핵심지인 하르그 섬 일부 폭격
3/14	**이란 "호르무즈 해협, 미국·동맹국 제외 열려있다"며 부분 봉쇄 언급**
	트럼프 대통령, 한·중·일·영·프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구
	이란, 호르무즈 해협 우회 경로인 UAE 수출 경로 푸자이라 항구 타격
3/15	**트럼프 대통령, 이번주 호르무즈 호위 연합 합의 발표 계획**
3/16	**이란 외무장관, 미국과 협상 이유 없다며 장기전 불사**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제3국들에는 안전한 통행 보장**

	이란 무인기(드론) 두바이 국제 공항 인근 공격
	이, UAE 남부 샤 유전 공격. 하루 7만 배럴 생산 능력 보유
	베센트 재무장관, 이란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허용 언급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전쟁으로 미·중 정상회담 한달 연기 요청
3/17	**모즈타바 하메네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출신 강경파 군사고문 임명**
	이란 혁명수비대, 바시즈 민병대 총지휘관 사망 확인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에 호르무즈 파병 요청
3/18	**이스라엘의 공습 통해 이스마일 하티브 이란 정보부 장관 사망**
	이스라엘, 이란 최대 가스전 폭격
	이란, 카타르 가스 시설 밀집 지역에 미사일 공격
3/19	**네타냐후, 이란은 더 이상 우라늄 농축, 탄도미사일 생산 할 수 없어**
	이란, 사우디, 쿠웨이트 주요 대형 정유시설 대상으로 공격 지속
	트럼프 대통령, 중동 지상군 투입 계획 부인
3/20	**트럼프, 이란 목표 달성 매우 근접, 군사노력 점진적 축소 검토중**
3/21	이란 외무장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과 관련 日과 협상 중
	미 중부사령관, 호르무즈 항행 위협하는 이란 시설 제거에 집중
	트럼프 대통령,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 할 것
3/22	**이란, 미국이 에너지 시설 공격시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할 것**
	이란, 이란의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에 개방
	이란, 미국의 발전소 타격 발언에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이스라엘 모든 에너지/통신인프라 타격, '미국 소유 기업 파괴', '미군기지 보유 국가 발전설비 타격' 등 4대 징벌적 조치 언급
3/23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좋고 생산적인 대화했다 언급하며 에너지 인프라 공격 5일 연기**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 등 미국·이란 간 중재 메시지 전달 중
	수 천명의 미 해병대 병력 금요일 중동에 진입할 예정
3/24	**미국, 이란과 회담 위해 한 달 휴전 추진**
	이란 다수의 100kg급 폭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우디 왕자가 트럼프에게 이란과의 전쟁 계속 하도록 요구
3/25	**이란, 미국의 15개 조건 제시에 5개 조건 발표하며 완전한 종전 요구**
3/26	**트럼프 대통령, 이란 공격 열흘 연기 발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
Stage 3: 후티 반군 참전을 시작으로 전선의 다층화로 확산	
3/28	**후티 반군, 이스라엘을 향한 두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주장하며 중동 전쟁 참여**
	이란, 중동 내 미사일·드론 공격, 여전한 보복 능력 입증
3/29	이란 매체, 미·이스라엘, 호르무즈 인근 이란 항구 도시 공습
3/31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돼도 종전 용의 있어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미국의 추가적 공격 없다는 보장 시 종전 준비됐다 밝혀
4/1	트럼프 대통령, 2~3주 내 이란에서 철수할 것이라 밝혀
4/2	이란, 오만과 전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의정서 초안을 마련 중이라 밝혀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에서 "향후 2~3주 극도로 강하게 이란 타격할 것"이라 발언
4/5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 하루 연장
4/6	미국·이란, 휴전 후 종전 합의 2단계 중재안 수령
4/7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개방하는 데 동의할 경우 2주간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 합의 언급
4/8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합의에 불포함이라 언급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유조선 회항 움직임 포착
	오는 11일 미국, 이란 협상팀 파키스탄에서 회담 예정
4/9	**이스라엘, 레바논 폭격 하루 만에 레바논 정부와 협상 예정**
Stage 4: 출구의 단계로 진입	
4/11	**미군, 협상와중 호르무즈 기뢰제거 시동 "구축함 2척 해협통과"**
	美이란, 종전협상 시작…"파키스탄 포함한 3자 회담"
4/12	**미·이란 협상 결렬**
	미국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4/13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개시 후 이란이 합의 원한다 발언**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습 재개 검토 중이라 언급
4/14	**이스라엘·레바논, 헤즈볼라 완전 무장 해제에 동의**
	트럼프 대통령, 이틀 안에 이란과 두 번째 협상 열릴 수 있다 언급
4/15	**미국·이란 종전 협상 시간 확보 위해 휴전 기간 2주 연장 검토**
4/16	**이스라엘·레바논 10일간 휴전 합의하고 백악관 회담 추진**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협상 긍정적이라 주말에 2차 회담 가능성 시사
4/17	**이란 외무 "레바논 휴전 기간에 호르무즈 통한 모든 선박 통행 자유화"**
	트럼프 "이란과 주말도 협상 계속, 합의하면 이란 봉쇄 종료"
	갈리바프 의장, 봉쇄가 지속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열려있지 않을 것

4/18	**미국 재무부, 러시아산 원유 한시적 판매를 한 달간 연장**
	이란, 민항기에 영공 일부 재개방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통제권 이전 상태로 회복"
	미 중부사령부, 호르무즈 봉쇄 후 이란 오가는 23척 선박 회항
4/19	**이란 대통령, 2차 종전 회담을 앞둔 가운데 자국의 핵 사용 권리를 강조**
	트럼프, "이스라엘은 위대한 동맹…남들과 달리 강하게 싸워"
	이스라엘군, 휴전 파기시 이란 에너지시설 공격
	미·이란 1차 협상장 세레나 호텔(파키스탄)서 곧 2차 회담 장소 유력
	젤렌스키, '러 원유 제재완화 연장' 美비판…"우크라 공격 직결"
	이란군이 재봉쇄를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2척 회항
	이란, 협상 대표단 파견 미정…美 해상봉쇄 해제가 선결 조건
	트럼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망을 뚫으려 한 이란 국적 선박 나포

자료: 언론 종합, 하나증권